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및 수익성 분석

2014. 9. 25.



작성 : 최중석 정책기획처 부장 / 도시공학박사 choijs@icak.or.kr
조성원 정책기획처 팀장 bizer@icak.or.kr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및 수익성 분석

2014. 9. 25.

목 차

《 요약 》

I. 서언	1
II. 해외건설 매출분석	1
1. 개황	1
2. 지역별 동향 및 특징	2
3. 부문별 동향 및 특징	5
4. 국가별 현황 및 동향	7
III. 글로벌 기업 분석	9
1. 상위 20개사 부문별 매출	9
2. 주요 글로벌기업 동향	11
3. 한국기업 매출	13
IV. 시사점 및 진출방향	15
1. 시사점	15
2. 진출 방향	17
[이슈 진단] 글로벌 건설기업 경영실적 분석	19
[참고문헌]	23

《 요 약 》

ENR 250(225)대 건설기업의 국내외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매출비중은 2008년 39.8%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35.8%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V자 형태를 취하면서 2011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해외 매출비중이 50%를 넘지는 않고 있으나 2011년 38.8%에서 2013년도에는 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50(225)대 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서의 매출액이 2010년 766.4억달러로 중동(724.3억달러)을 넘어섰으며 2011년도에는 약 1,122억달러로 유럽(1,014.6억달러)을 제치고 이후에는 부동의 해외매출 1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산업/석유화학부문이 2007년 953.7억달러를 기점으로 교통(793.3억달러) 및 건축(740.3억달러)부문을 제치고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은 2004년 대비 2013년도에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한국기업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한국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8.1%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3년도에는 점유율이 7.8%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동지역에서 2013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0억달러 감소했지만 아시아 및 중남미 매출액은 57.5억달러가 증가하여 신흥시장으로 매출선 다변화를 꾀하면서 내실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석유화학 부문 2013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41억달러 감소한 반면, 건축 및 전력부문에서 43.5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종 다각화도 일부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경제에 직격탄을 보내는 반면, 높은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촉진시키면서 주력시장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가하는 인구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부문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글로벌기업 동향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향후 진출 방향은 ①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획 역량 강화, ② 글로벌 M&A를 통한 원자재 확보 및 수주확대, ③ 녹색(친환경) 건설관련 특허, 법률부문 강화, ④ CSR 전문가 확보를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 심화, 가격 위주 발주 증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에 주력하면서 세부 지역·공종별로 선택적으로 외형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방향이 요구된다.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및 수익성 분석

I. 서언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외건설 수주액도 2010년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누계 3,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수주액도 70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2013년도 ENR 해외건설 매출액(424억달러)도 급신장하여 2004년(30.7억달러) 대비 1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3년 해외건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억달러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매출 점유율은 작년 8.1%에서 0.3%p 감소한 7.8%로 나타났다. 이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실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ENR에서 2014년 8월에 발표한 2013년 250대¹⁾ 기업의 매출액을 분석하여 지역별, 공종별 매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 후에 상위 20개사와 한국기업의 매출을 비교해보고, 이에 더해 지역별, 공종별 전망과 함께 주요 글로벌기업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해외건설의 지속성장 전략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해외건설 매출분석

1. 개황

ENR 250(225)대 건설기업의 국내외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외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매출비중은 2008년 39.8%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35.8%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0년도를 기점으로 V자 형태(그림1 참조)를 취하면서 2011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NR 250(225)대 건설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추이(그림2 참조)를 살펴보면, 2005년 10.6%를 기록한 이후 해외 매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2013년도에는 4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ENR(Engineering News-Record)가 2013년도부터 설문에 응한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250대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225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됨

그림1. 250(225)대 기업 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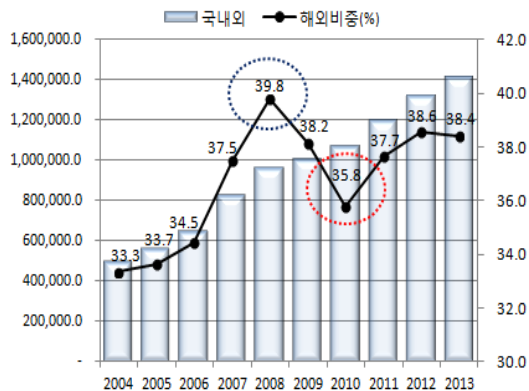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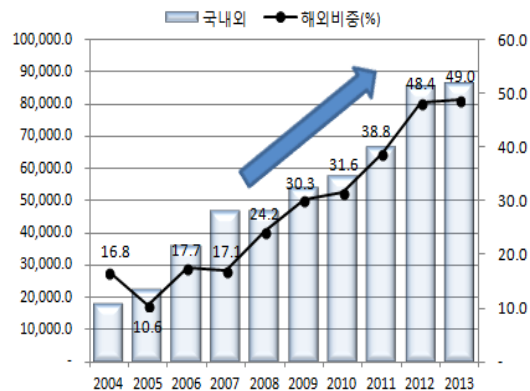


그림2. 한국기업 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11~2013년간 한국을 포함한 상위 5개국 국내외 매출비중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표1 참조), 해외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독일, 스페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출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아직 해외 매출비중이 50%를 넘지는 않고 있으나 2011년 38.8%에서 2013년도에는 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최근 3년간 국적별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한 국	38.8	61.2	48.4	51.6	49.0	51.0
스페인	64.2	35.8	73.8	26.2	76.5	23.5
미 국	56.7	43.3	57.0	43.0	55.4	44.6
중 국	13.5	86.5	12.8	87.2	13.9	86.1
프랑스	43.5	56.5	45.4	54.6	42.3	57.7
독 일	81.6	18.4	82.6	17.4	81.9	18.1

2. 지역별 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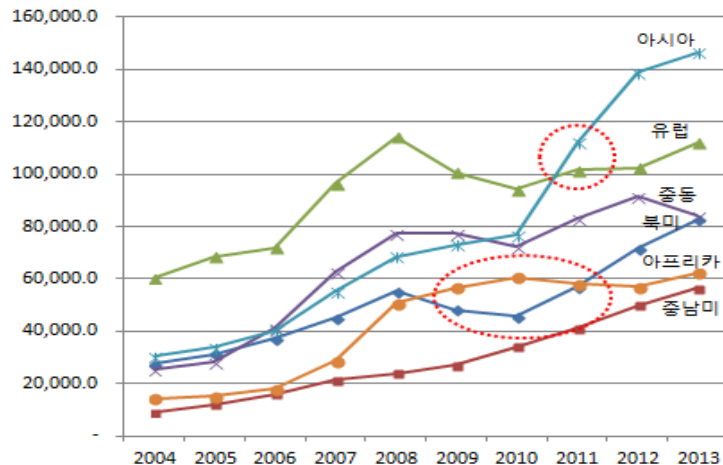
250(225)대 기업의 매출액 추이(그림3 참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에서의 매출액이 2010년 766.4억달러로 중동(724.3억달러)을 넘어섰으며 2011년도에는 약 1,122억달러로 유럽(1,014.6억달러)을 제치고 이후에는 부동의 해외매출 1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2010년까지 매출 감소를 경험한 유럽과 북미, 중동지역이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은 오히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이다. 한편, 아프리카지역과 북미지역의 2009년~2011년간 매출은 서로 등락을 교차하면서 상호보완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250(225)대 기업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250(225)대 기업의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표2 참조)를 살펴보면,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실적은 점차 감소하면서 대신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으로 실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지역 매출 점유율은 2004년도에 36%에서 2013년도에 20.6%로 9.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도 2007년도에 20.3%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13년도에는 15.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은 2004년 18.2%에서 2013년도에는 26.9%로 증가하여 유럽지역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2004년 5.4%에서 2013년 10.4%로 중동지역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250(225)대 기업 지역별 매출 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북 미	16.6	16.5	16.5	14.6	14.1	12.6	11.9	12.6	14.0	15.2
중 남 미	5.4	6.4	7.1	6.9	6.1	7.1	8.9	9.1	9.8	10.4
유 럽	36.0	36.2	32.0	31.1	29.3	26.3	24.6	22.4	20.0	20.6
중 동	15.2	14.9	18.4	20.3	19.9	20.2	18.9	18.3	17.9	15.5
아 시 아	18.2	17.8	17.9	17.9	17.6	19.1	20.0	24.8	27.2	26.9
아프리카	8.5	8.0	8.0	9.2	13.1	14.8	15.8	12.8	11.1	11.4

* 지역구분이 안된 매출실적은 제외됨

ENR 250(225)대 건설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 점유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3 참조), 2013년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호주 포함)가 26.9%, 유럽 20.6%, 중동 15.5%, 아프리카 11.4%, 북미 15.2%, 중남미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북미지역(+15.4%)로 이중 캐나다가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중남미가 +13%, 유럽 및 아프리카가 +9.4%, 아시아가 +5.5%, 중동이 -7.9%로 나타났다.

표3. 최근 3년간 ENR 250(225)대 건설기업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2011		2012		2013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중 동	-7.9	83,074.2	18.3	91,318.1	17.9	84,129.0	15.5
아 시 아	+5.5	112,194.7	24.8	138,814.2	27.2	146,474.2	26.9
아프리카	+9.4	5,814.9	12.8	56,864.9	11.1	62,236.1	11.4
유 럽	+9.4	101,462.8	22.4	102,262.9	20.0	111,864.4	20.6
미 국	+9.7	3,670.6	8.1	44,106.4	8.6	48,405.8	8.9
캐 나 다	+24.4	20,201.6	4.5	27,492.8	5.4	34,200.9	6.3
중 남 미	+13.0	41,110.6	9.1	50,016.1	9.8	56,530.1	10.4
합 계	+6.5	452,898.9	100.0	510,875.4	100.0	543,840.5	100.0

* 지역구분이 안된 매출실적은 제외됨

지역별 매출 상위 10개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중동지역에서 단연 돋보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 2위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차지했으며 올해에 신규로 삼성물산이 7위에 진입해 총 5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외에 가격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인도 Larsen & Toubro사 및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의 신규 진입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Hochtief 및 스페인 Grupo ACS가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은 삼성물산과 일본 JGC가 상위 10개사에 포함되었다. 중남미지역은 브라질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스페인 Grupo ACS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은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과 이태리 Saipem이 1, 2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지역은 유럽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왔는데 유럽지역에서 7위, 미국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상위 10개사에 신규 진입한 스페인 Ferrovial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스페인 Grupo ACS는 표3의 5개 지역 상위 10개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 Hochtief는 3개 지역, 미국 Bechtel이 3개 지역, 프랑스 Vinci가 2개 지역, 미국 Fluor가 4개 지역, 오스트리아 Strabag이 유럽지역에, 프랑스 Bouygues가 5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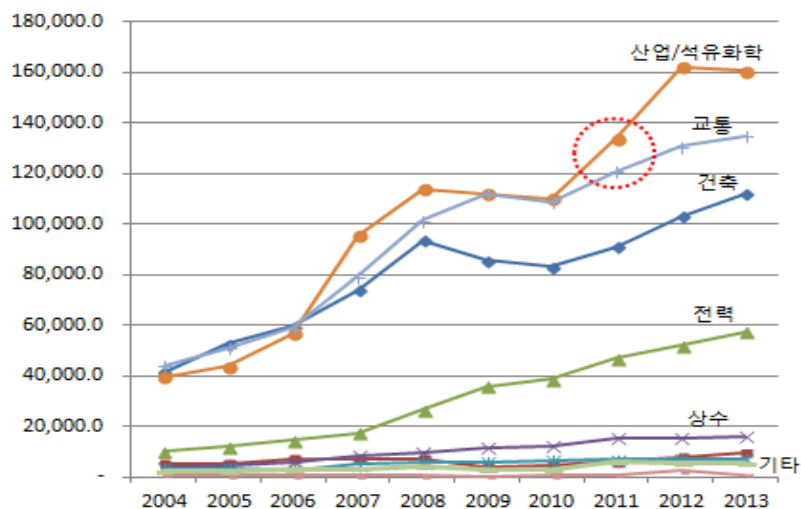
스웨덴 Skanska가 2개 지역,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가 3개 지역에서 각각 상위 10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문별 동향 및 특징

250(225)대 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그림4 참조), 산업/석유화학 부문이 2007년 953.7억달러를 기점으로 교통(793.3억달러) 및 건축(740.3억달러) 부문을 제치고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이들 3개 부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까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산업/석유화학 이외에 전력, 상수부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전력부문은 2004년 대비 2013년도에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그림4. 250(225)대 기업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또한 부문별 매출비중 추이(표4 참조)를 살펴보면, 건축 및 제조공장부문 실적이 점차 감소하면서 2007년도부터 산업/석유화학 및 전력부문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부문 매출 점유율은 2004년도에 24.8%에서 2013년도에 20.6%로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장도 2006년도에 3.3%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13년도에는 1.7%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산업/석유화학부문은 2004년 23.6%에서 2013년도에는 29.5%로 건축부문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전력부문도 2004년 6.0%에서 2013년 10.5%로 제조공장 등의 부문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 250(225)대 기업 부문별 매출 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축	24.8	27.8	26.5	23.9	24.5	22.4	21.7	20.1	20.2	20.6
제조공장	3.0	2.6	3.3	2.3	1.8	1.0	1.2	1.3	1.5	1.7
전 력	6.0	6.3	6.4	5.6	7.0	9.3	10.1	10.4	10.2	10.5
상 수	2.5	2.3	2.5	2.7	2.5	2.9	3.2	3.3	3.0	2.9
하 폐 수	2.0	1.8	1.3	1.6	1.5	1.6	1.7	1.5	1.4	1.3
산업/석유화학	23.7	23.0	25.3	30.7	29.8	29.2	28.7	29.6	31.7	29.5
교 통	26.4	26.9	26.3	25.6	26.5	29.2	28.4	26.7	25.6	24.8
유해폐기물	0.4	0.3	0.2	0.2	0.1	0.1	0.1	0.1	0.5	0.2
통 신	1.2	1.2	1.2	1.0	1.0	0.7	0.7	1.3	1.1	1.0

* 기타부문 매출실적은 제외됨

ENR 250(225)대 건설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 점유율을 부문별로 살펴보면(표5 참조), 2013년 250대 기업 매출액의 부문별 구성 비율은 산업/석유화학이 29.5%, 교통 24.8%, 건축 20.6%, 전력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제조공장(+18.4%)으로 이어서 전력이 +10.3%, 건축 +8.5%, 교통 +3.3%로 나타났다.

표5. 최근 3년간 ENR 250(225)대 건설기업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2011		2012		2013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건 축	+8.5	91,167.3	20.1	103,219.4	20.2	112,021.7	20.6
제조공장	+18.4	6,085.1	1.3	7,847.4	1.5	9,290.0	1.7
전 력	+10.3	47,032.1	10.4	51,895.7	10.2	57,262.8	10.5
상 수	+1.7	15,076.4	3.3	15,490.9	3.0	15,758.4	2.9
하 폐 수	+0.3	6,956.9	1.5	7,031.8	1.4	7,052.7	1.3
산업/석유화학	-0.9	133,894.8	29.6	162,027.4	31.7	160,642.2	29.5
교 통	+3.3	121,103.0	26.7	130,757.1	25.6	135,117.2	24.8
유해폐기물	-59.9	642.2	0.1	2,358.2	0.5	944.9	0.2
통 신	-4.2	5,991.4	1.3	5,390.2	1.1	5,161.8	1.0
기 타	-	25,067.9	5.5	25,035.4	4.9	40,718.6	7.5
합 계	+6.4	453,017.1	100.0	511,053.5	100.0	543,970.3	100.0

부문별 매출 상위 10개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산업/석유화학 및 전력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미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부문 상위 10개사에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페인 Grupo ACS가 신규 진입한 점이 주목된다. 현대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나란히 4, 5위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상위 10개사에 브라질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오스트리아 Strabag 등 3개사가 신규로 진입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상위 10개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부문은 중국 Shanghai Electric Group이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일본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제조공장 부문은 독일 M+W Group GMBH사가 신규로 1위를 탈환하였다.

스페인 Grupo ACS는 표5의 9개 부문 상위 10개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 Hochtief는 7개 부문, 포함되어 미국 Bechtel이 3개 부문, 프랑스 Vinci가 4개 부문, 미국 Fluor가 3개 부문, 오스트리아 Strabag이 5개 부문, 프랑스 Bouygues가 3개 부문, 스웨덴 Skanska가 5개 부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이 2개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별 현황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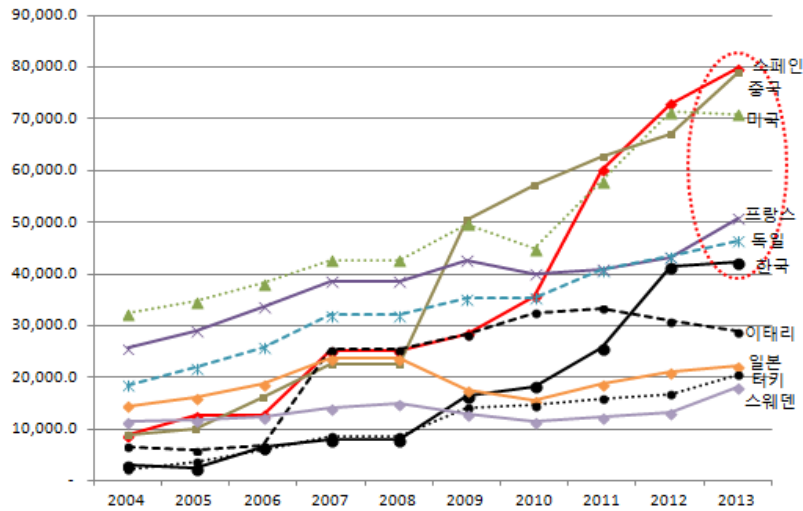
2013년 매출 기준 상위 10개국 매출액 추이(그림5 참조)를 살펴보면, 스페인,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선두그룹, 프랑스, 독일, 한국으로 구성된 중진그룹과 이태리, 일본, 터키, 스웨덴의 잠재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두그룹과 중진그룹은 매출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중진그룹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부터 상위 10개국도 순위변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10위권내에 자주 속하지 못하는 영국을 확인해보자. 영국은 2005년에 5위에서 2006년 8위, 2007년 및 2008년도 9위, 2009년 영국 10위, 2010년~2013년간 2011년도를 제외하고 10위권 내에 속하지 못했다. 영국의 실적 부진에 반해 중국, 스페인, 한국은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7위였던 중국은 2009년도에 1위로 등극하여 2011년까지 1위를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스페인도 2004년 8위에서 2007년 5위를 거쳐 2011년 2위, 2012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잠재그룹 4개국 중 가장 큰 상승력을 지닌 국가로 이태리를 꼽을 수 있다. 이태리와 터키는 한국과 함께 2006년도에 비등한 매출로 시작하였으나 터키는 2009년부터 후발주자로 머물러 있으며 이태리는 2006~2011년간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해왔다. 물론 일본도 최근 들어 해외건설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스웨덴은 Skanska만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격한 매출 신장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상위 10개국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최근 3년간 국가별 매출 추이(표6 참조)를 살펴보면, 스페인은 2012년 1위 탈환 이후 꾸준한 매출증가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독일과 박빙의 승부를 겨루다가 2013년도에 매출액을 높이면서 4위로 올라섰다. 2012년 독일, 프랑스, 한국의 매출 차이는 2억달러 미만으로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는 듯 했으나 프랑스가 앞서 나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작년부터 수익성 논란이 야기되면서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경영 패턴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최근 3년간 국가별 매출 추이

(단위: 억달러, %)

순위	2011(225대 기업)			2012(250대 기업)			2013(250대 기업)		
	국가 (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 (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 (기업수)	금액	점유율
1	중국(52)	627.1	13.8	스페인(12)	728.9	14.3	스페인(13)	798.5	14.7
2	스페인(12)	602.1	13.3	미국(33)	715.2	14	중국(62)	790.1	14.5
3	미국(26)	579.7	12.8	중국(55)	670.7	13.1	미국(31)	709.6	13.0
4	독일(4)	408.3	9.0	독일(4)	434.9	8.5	프랑스(5)	507.4	9.3
5	프랑스(4)	408.3	9.0	프랑스(4)	432.4	8.5	독일(5)	465.5	8.6
6	이탈리아(19)	333.7	7.4	한국(15)	413.9	8.1	한국(13)	424.2	7.8
7	한국(12)	257.7	5.7	이탈리아(17)	309.3	6.1	이탈리아(16)	289.0	5.3
8	일본(14)	188.3	4.2	일본(15)	210.2	4.1	일본(14)	222.4	4.1
9	터키(33)	159.0	3.5	터키(38)	168.0	3.3	터키(42)	204.1	3.8
10	영국(4)	127.5	2.8	스웨덴(1)	132.9	2.6	스웨덴(2)	183.3	3.4

2013년 국적별로 지역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동지역 매출액은 한국(25.8%), 아시아는 중국(17.3%), 아프리카는 중국(48.7%), 유럽은 프랑스(22.6%), 미국은 스페인(22.6%), 캐나다는 미국(68.1%), 중남미는 스페인(28.8%)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매출 점유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아래와 같다.

- 중 동 : 한국(25.8%), 중국(16.4%)
- 아시아 : 중국(17.3%), 독일(15.8%), 미국(15.6%), 스페인(13.9%), 일본(10.4%), 한국(10.0%)
- 아프리카 : 중국(48.7%), 이태리(10.3%)
- 유 럽 : 프랑스(22.6%), 스페인(15.7%)
- 중남미 : 스페인(28.8%), 브라질(17.3%), 미국(16.0%), 중국(10.5%)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은 2개국의 매출 점유율이 35% 이상으로 특히, 아프리카는 중국과 이태리의 점유율이 60% 정도까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은 4개국 이상이 경쟁하고 있어 신규 진입시 이들 국가 기업들과 경쟁보다는 전략적 M&A 혹은 J/V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글로벌 기업 분석

1. 상위 20개사 부문별 매출

ENR 상위 20개사²⁾의 해외 매출비중(그림6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2004~2013년간 최저 해외 매출비중은 49.5%, 최고 비중은 62.8%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개사(그림7 참조)의 해외 매출비중은 최저가 59.2%, 최고가 64.7%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2011년을 제외하고 60% 이상으로 해외비중이 국내비중 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6. 상위 20개사 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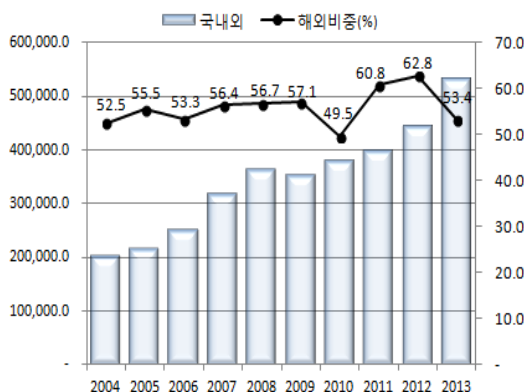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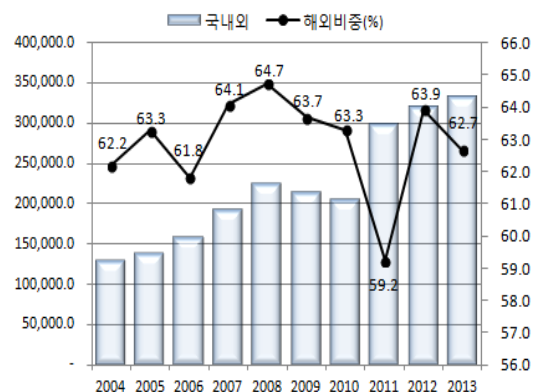


그림7. 상위 10개사 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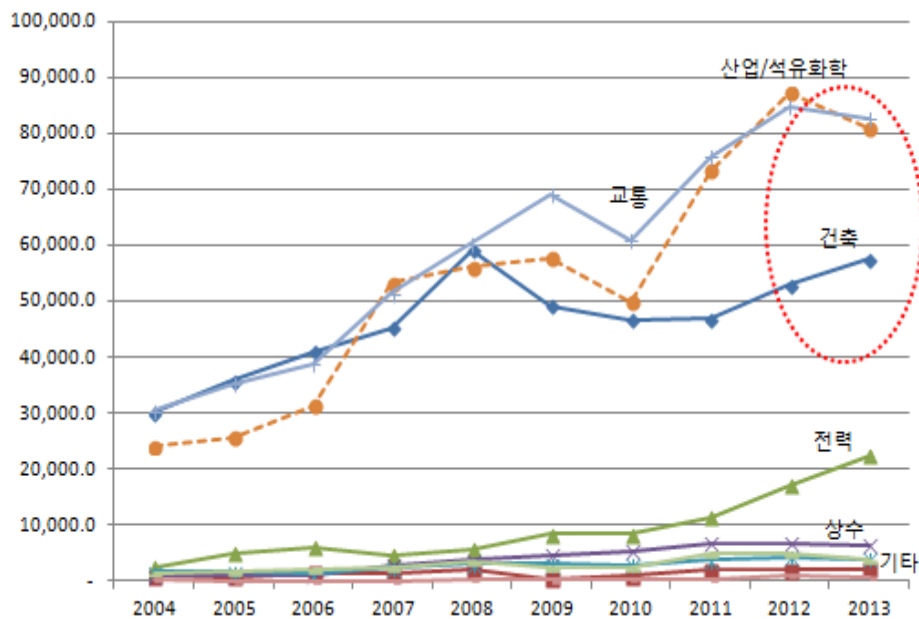


2) ENR지에서 발표되는 상위 20개사(1~20위)는 매년 순위변동이 있어 소수기업은 연도에 따라 20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상위 10개사도 동일)

ENR 상위 20개사의 매출액 추이(그림8 참조)를 살펴보면, 산업/석유화학, 교통, 건축 부문 매출비중이 250(225)대 기업 전체 매출비중보다 약 4%³⁾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 20개사는 이들 3개 부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산업/석유화학 이외에 교통부문에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8. 상위 20개사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ENR 상위 20개사의 2013년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표7 참조), 교통부문 매출 점유율이 전체의 15.2%로 가장 크며 산업/석유화학이 14.9%, 건축이 10.6%, 전력이 4.1%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문별 매출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상위 20개사는 교통과 산업/석유화학 부문의 매출 점유율이 서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상위 20개사의 전력부문 매출 점유율이 2011년에 2.5%에서 2013년 4.1%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산업/석유화학 및 교통부문의 매출 점유율 감소 부분을 메운 것으로 생각된다.

3) 2004~2013년간 250(225)대 기업 산업/석유화학, 교통, 건축부문 매출액 평균 비중은 78.0%로 분석되었으며 동일기간 상위 20개사의 3개 부문 매출액 평균 비중은 81.9%로 나타남

표7. 최근 3년간 상위 20개사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건축	46,982.1	10.4	53,028.0	10.4	57,648.1	10.6
제조공장	1,974.4	0.4	2,076.4	0.4	2,116.7	0.4
전력	11,314.0	2.5	16,943.3	3.3	22,253.3	4.1
상수	6,852.4	1.5	6,890.9	1.4	6,512.8	1.2
하폐수	3,887.0	0.9	4,342.8	0.9	4,015.6	0.7
산업/석유화학	73,388.7	16.2	87,247.4	17.1	80,956.6	14.9
교통	75,927.8	16.8	84,884.4	16.6	82,742.5	15.2
유해폐기물	398.5	0.1	1,183.1	0.2	699.3	0.1
통신	5,027.7	1.1	4,828.9	0.9	3,871.5	0.7
기타	17,610.0	3.9	17,315.6	3.4	24,460.0	4.5
합계	243,362.6	53.7	278,740.8	54.5	285,276.4	52.4
총계	453,016.9	100.0	511,053.5	100.0	543,970.4	100.0

2. 주요 글로벌기업 동향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기업의 조직을 살펴보면(그림9 참조), 공중, 지역 또는 사업형태에 초점을 두고 해외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중 중심형 조직으로 구성된 스페인 Grupo ACS, 지역 중심형 조직으로 구성된 독일 Hochtief, 사업 중심형으로 구성된 프랑스 Vinci를 대상으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인 Grupo ACS는 공중 중심의 토건, 산업서비스, 환경섹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토건 섹터는 Dragados, 독일 Hochtief, Iridium 등의 자회사로, 산업서비스 섹터는 ACS Servicios Comunicaciones Y Energia S.L., Grupo Cobra 등의 자회사로, 환경 섹터는 ACS Servicios Y Concesiones, S.L., Urbaser S.A. 등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매출 12위에서 2011년 2위에 이어 2012년도에 1위로 등극한 스페인 Grupo ACS는 글로벌 M&A(2011년 Hochtief 지분의 50% 인수)를 통해 공중 및 지역 다변화뿐만 아니라 도급 및 자회사인 Iridium을 통한 개발형(PPP) 프로젝트에도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Grupo ACS는 2012회계연도에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운영 수익률이 2010년도에 7.3%에서 2012년도에 4.2%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2년 매출액은 2011년(순이익 12.4억달러) 보다 34.9%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액이

24.8억달러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스페인에서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지속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9. 주요 글로벌 건설기업의 특징



독일 Hochtief는 지역 중심의 미주, 아시아, 유럽 섹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발(Developing)사업 부문은 Hochtief Solutions, Leighton 등을 자회사로, 시공부문은 Hochtief Solutions, Leighton, Turner, Flatiron 등을 자회사로, 운영부문은 Hochtief Solutions, Hochtief AirPort, Leighton, Hochtief Property Management, Hochtief Solutions Facility Management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10년 이상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해오던 Hochtief는 2012년 매출 2위로 물러나게 되었다.

건축과 교통부문에 강점을 가진 Hochtief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으며 사업 기획, 자금조달, 마케팅, O&M, 자산관리까지 수행하는 통합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ochtief도 2000년도에 미국 Turner사 인수를 통한 미주시장 확대, 2001년도에 호주 Leighton 인수를 통해 아시아시장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자회사인 Leighton는 이라크 송유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증여한 혐의가 포착되어 호주 연방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eighton은 지난 2011년 호주 연방경찰에 이라크와 인도네시아 뇌물 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를 했으나, 윤리 강령(code of ethics)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프랑스 Vinci는 사업중심의 양허투자사업, 도급계약 섹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양허투자사업 섹터는 Vinci Autoroutes, Vinci Concessions, Vinci Immobilier 등을

자회사로, Contracting 섹터는 Vinci Energies, Eurovia, Vinci Construction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Vinci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 개발형 사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도급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수평적인 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Vinci의 프랑스 매출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자국에 대한 매출 편중이 심해 경기침체 및 불리한 사회 환경 등에 노출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률 저하 등의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

공중 중심형 조직으로 구성된 미국 Fluor는 원유 및 가스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비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소비량이 2008년 2,602TWh에서 매년 2.4%씩 증가하여 2035년도에는 4,916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luor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 O&M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 소형 원자력 반응기(SMR) 생산기업인 NuScale Power LLC사(Oregon 소재)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NuScale사는 경수로 및 수동 안전 SMR(소형 모듈형 원전) 생산 리더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Fluor에게 이 부문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중심형 조직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Strabag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탄탄한 원자재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318기의 아스팔트 혼합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자체 아스팔트 수요의 83%를 커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67기의 콘크리트 혼합 플랜트와 187기의 석자재 및 자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Strabag은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아스팔트의 62%, 콘크리트는 37%, 석자재 및 자갈은 32%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외부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3. 한국기업 매출

ENR 250(225)대 건설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한국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8.1%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3년도에는 점유율이 7.8%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특징

- ① 우리나라 해외건설 점유율은 7.8%('12년 8.1%)로 내실화에 집중
- ②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 기록
- ③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1위 차지('11년 25위→'11년 15위→'13년 13위)

하지만 중동지역에서 2013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0억달러 감소했지만 아시아 및 중남미 매출액은 57.5억달러가 증가하였다. 해당지역 매출 점유율도 중동지역은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3.4%p 감소하였으나 아시아지역에서의 점유율은 3%p, 중남미는 1.4%p, 캐나다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8 참조). 즉 중동지역에서 신흥시장으로 매출선 다변화를 꾀하면서 내실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8. 최근 3년간 한국의 지역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중 동	17,232.5	20.7	26,700.9	29.2	21,688.7	25.8
아 시 아	4,713.3	4.2	9,782.3	7.0	14,578.2	10.0
아프리카	2,186.6	3.8	2,732.0	4.8	3,026.5	4.9
유 럽	36.0	0.0	309.9	0.3	330.6	0.3
미 국	241.0	0.7	598.4	1.4	220.9	0.5
캐 나 다	68.2	0.3	111.8	0.4	460.4	1.3
중 남 미	1,291.1	3.1	1,154.4	2.3	2,110.7	3.7
합 계	25,768.7	5.7	41,389.7	8.1	42,416.0	7.8
250대 기업 총계	452,898.9	100.0	510,875.4	100.0	543,840.5	100.0

* 지역구분이 안된 매출실적은 제외됨, 2011년도는 225대 기업 총계

한국기업의 매출 추이(표9 참조)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석유화학 부문 2013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41억달러 감소한 반면, 건축 및 전력부문에서 43.5억달러 증가하였다. 해당부문 매출 점유율도 산업/석유화학 부문은 전년 대비 2.4%p 감소하였으나 건축부문은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중 다각화도 일부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9. 최근 3년간 한국의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건 축	1,291.6	1.4	2,948.7	2.9	6,344.6	5.7
제조공장	312.5	5.1	754.6	9.6	562.2	6.1
전 력	4,278.2	9.1	8,676.2	16.7	9,624.7	16.8
상 수	254.5	1.7	250.1	1.6	500.7	3.2
하 폐 수	33.0	0.5	324.7	4.6	692.2	9.8
산업/석유화학	17,081.9	12.8	24,933.9	15.4	20,835.5	13.0
교 통	2,431.4	2.0	2,762.5	2.1	2,238.7	1.7
유해폐기물	0	0	0	0	0	0
통 신	0	0	37.1	0.7	74.3	1.4
기 타	85.6	0.3	718.6	2.9	1,549.5	3.8
합 계	25,768.7	5.7	41,406.4	8.1	42,422.4	7.8
250대 기업 총계	453,017.1	100.0	511,053.5	100.0	543,970.3	100.0

* 2011년도는 225대 기업 총계

한국의 기업별 매출 추이(표10 참조)를 살펴보면, 250대 기업 순위에 한국기업은 전년 대비 2개사(두산건설, 금호산업)가 제외된 총 13개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20대 기업에 현대건설(13위), 삼성Eng(15위), 삼성물산(17위) 3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50대 기업에는 GS건설(29위), 대림산업(30위), SK건설(43위), 대우건설(49위)이 추가되어 7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한국 기업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순위	2011(225대 기업)		순위	2012(250대 기업)		순위	2013(250대 기업)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업체명	해외매출
15	삼성ENG	59.1	13	삼성ENG	86.5	13	현대건설	87.1
25	현대건설	42.5	15	현대건설	78.1	15	삼성ENG	71.3
32	GS건설	33.0	26	대림산업	48.1	17	*삼성물산	63.1
40	대림산업	27.1	28	GS건설	44.1	29	GS건설	47.1
45	SK건설	24.3	35	SK건설	37.1	30	대림산업	43.8
50	대우건설	21.7	36	삼성물산	35.2	43	SK건설	30.5
63	삼성물산	15.7	40	대우건설	32.1	49	대우건설	27.6
66	포스코건설	15.5	46	포스코건설	25.6	57	포스코건설	23.7
101	한화건설	7.7	88	한화건설	10.2	73	한화건설	16.5
134	쌍용건설	4.6	132	쌍용건설	5.0	135	쌍용건설	5.4
163	두산건설	3.3	143	*두산건설	4.4	168	롯데건설	3.5
170	포스코ENG	3.2	187	롯데건설	2.6	189	포스코ENG	2.8
			194	포스코ENG	2.5	223	한전기술	1.8
			245	한전기술	1.2			
			246	*금호산업	1.2			
합계	12개	257.7	합계	15개	413.9	합계	13개	424.2

상위 20위내에 포함된 기업수는 스페인이 Grupo ACS 등 3개사, 중국이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등 2개사, 미국이 Bechtel 및 Fluor 2개사, 프랑스가 Vinci 등 3개사, 독일이 Hochtief 등 2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상위 5개국도 3개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기업의 대규모 매출액이 국가 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시사점 및 진출방향

1.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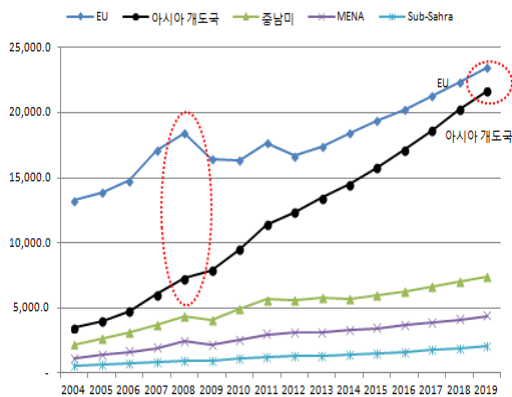
ENR에서 조사한 글로벌 기업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이 향후 건설시장의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IMF에 의하면, 아시아 개도국⁴⁾의 GDP는 2008년도에 EU와 11.2조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부터 GDP 차액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그림10 참조)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09년도를 기점으로 국내 총 투자금액(Investment in National Accounts)⁵⁾도 급격히 증가해 2014년도에는 EU의 거의 두배인 6조 1,790억달러(GDP의 4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11 참조). 즉,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경제에 직격탄을 보내는 반면, 높은 인구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촉진시키면서 주력시장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남미 국내 총 투자액도 1조 2,000억달러(GDP의 21.1%)가 전망됨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기술 개발을 통한 개도국 맞춤형 수주전략 마련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역 다변화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10. GDP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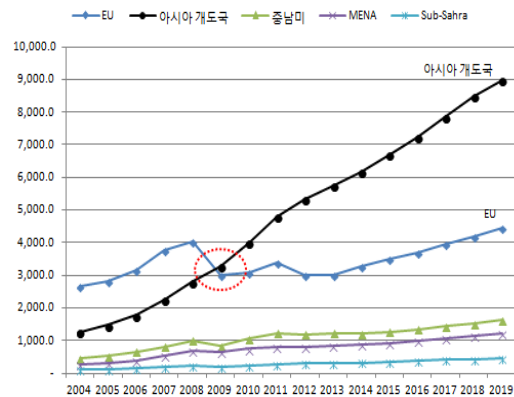
(단위: 10억달러)



* 자료 : IMF Data & Statistics, 2014

그림11. 총 투자액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달러)



둘째, 증가하는 인구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부문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부문별 매출동향에 의하면 산업/석유화학, 교통, 건축부문 매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주춤하였다. 반면, 전력부문 매출액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도에 5.7배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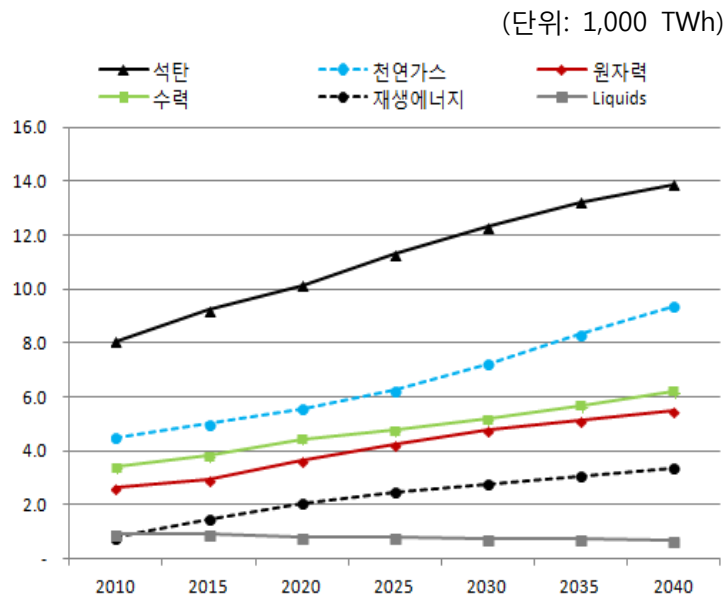
4) IMF는 29개국(Bangladesh, Bhutan,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Fiji, India, Indonesia, Kiribati, Lao P.D.R.,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icronesia, Mongolia, Myanmar, Nepal, Palau,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olomon Islands, Sri Lanka, Thailand, Timor-Leste, Tonga, Tuvalu, Vanuatu, and Vietnam)을 Emerging and developing Asia로 분류함

5) 국내의 자본재(원료, 재료, 기계, 장치, 기타의 공장설비 등)에 지출하는 국내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를 합한 금액으로 국내총지출 중에서 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전세계 전력생산량은 2010~2040년간 18,793.4TWh⁶⁾가 추가될 전망이다. 2040년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은 여전히 석탄 화력이 35.6%로 가장 많으며 가스 화력이 24%, 수력이 16%, 원자력이 14.1%, 재생에너지가 8.6%, 유류가 1.7%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12 참조).

석탄화력은 2040년에 추가되는 전력생산량이 5,839TWh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로 이산화탄소포집시설 건설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8%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스화력과 원자력도 2040년도에 추가되는 전력생산량이 각각 4,893TWh, 2,872TWh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인 풍력의 경우 전력설비용량이 2000년 18GW⁷⁾에서 2010년도에 183GW로 급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2. 발전원별 순 전력생산 전망



2. 진출 방향

이와 함께 앞서 주요 글로벌기업 동향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향후 진출 방향은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획 역량 강화, ② 글로벌 M&A를 통한 원자재 확보 및 수주확대, ③ 녹색(친환경) 건설관련 특허, 법률부문 강화, ④ CSR 전문가 확보를

6) Terawatt Hour의 약자로 1TWh는 시간당 1조 와트의 전력량을 말함

7) Gigawatt Hour의 약자로 1GWh는 시간당 10억 와트의 전력량을 말함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안정적인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사별 특징에 따라 사업구도를 혁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종다각화도 필요하겠지만 전문 특화공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지역별 현지 우수기업 인수를 통해 수주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공종이 다각화된 기업은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해 국내외 우수 종합상사, 현지 유력기업과 J/V를 비롯하여 기획, 금융조달, PM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진출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슈 진단]

글로벌 건설기업 경영실적 분석

우리나라 해외건설을 주도하는 상위 10개 건설기업¹⁾의 매출증가율은 <그림1>에 제시된 것처럼 2011년과 2012년 각각 13.8%, 17.2%를 나타낸 이후 작년에는 7%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형 성장의 부작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0개 기업의 2013년 순이익률은 -2.0%로 약 1조 7천억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 순이익률은 0.9%를 기록하여 약 4천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이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근 외형 성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실 경영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한국 건설기업 매출·수익률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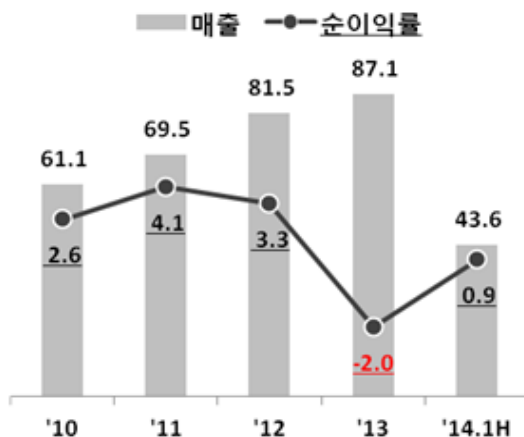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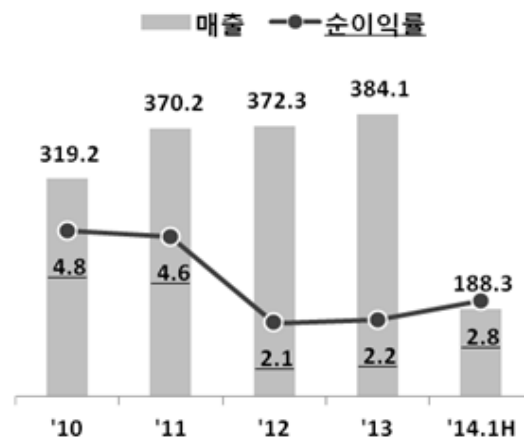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그림2.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수익률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자료: CIC(<http://construction-ic.com>),
각사 Annual Report

한편 ENR 해외 부문 상위 19개 건설기업²⁾의 매출은 <그림2>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난 2011년에 전년 대비 16% 증가한 후 최근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순이익률도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후 저조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 소폭 개선되어 2.8%를

1) 10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 최근 5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공사 등 건설 분야 외 수주 실적 상위 업체는 제외하였다.

2) 2010년과 2013년 해외 부문 25대 업체에 각각 포함된 업체 중 중국과 우리나라 업체를 제외하고 자료 수집이 가능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최근 글로벌 건설기업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양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글로벌 건설기업 경영 실적 요약

(단위: 10억 달러, %)

순위		업체	매출 ¹⁾			경영지표	
2013	2010		합계	해외	비중	성장성 ²⁾	수익성 ³⁾
31	21	OHL	6.1	4.4	72.1	-10.9	11.50
14	*	Ferrovial	10.9	7.4	68.3	-4.6	11.44
21	22	Petrofac	5.7	5.7	100.0	13.3	9.92
10	9	Technip	12.4	12.2	98.7	15.4	6.63
4	2	Vinci	54.1	20.3	37.5	6.0	4.91
35	16	Lend Lease	10.6	4.1	38.1	5.1	4.73
11	6	Saipem	12.3	12.1	98.6	2.0	3.78
8	5	Skanska	18.4	14.1	76.7	3.7	3.70
16	13	Bilfinger	11.3	6.9	60.6	1.9	3.38
40	14	KBR	5.5	3.4	62.5	-10.6	2.90
5	7	Fluor	22.1	16.8	75.8	9.5	2.19
7	4	Bouygues	36.0	14.8	41.1	1.8	0.95
6	8	Strabag	18.0	15.4	85.4	0.3	0.94
33	25	Leighton	21.5	4.2	19.3	15.7	0.93
*	19	Balfour Beatty ⁴⁾	13.6	-	-	-1.9	0.69
2	1	Hochtief	37.0	34.8	94.1	10.3	0.22
18	17	Royal Bam	9.7	5.9	61.3	-1.6	-0.05
1	12	Grupo ACS	51.0	44.1	86.3	35.6	-0.25
36	10	FCC	9.3	3.9	41.9	-18.1	-9.31

1) ENR 기준, 2) 2010-2013년 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3) 2011-2013년 합계 순이익률, 4) Annual Report 매출 수치 인용

* ENR 순위 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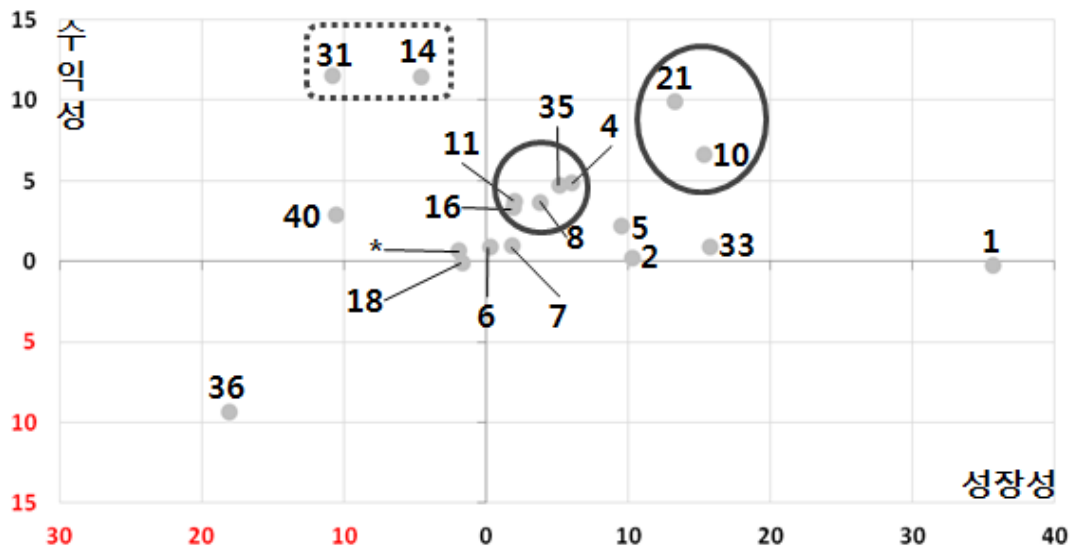
자료: ENR, CIC(<http://www.construction-ic.com>), 각사 Annual Report

<표1>과 <그림3>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기업의 경영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³⁾,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오일 서비스 분야의 Petrofac(21, 영국), Technip(10, 프랑스) 등 2개 기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간 외형 축소 없이 3~5% 내외의 순이익률을 기록한 업체도 Vinci(4, 프랑스), Lend Lease Group(35, 호주), Saipem(11, 이탈리아), Skanska(8, 스웨덴), Bilfinger(16, 독일) 등 5개 기업뿐이다.

3) 19개 업체의 연도별 매출 및 순이익률 추이는 <별첨>으로 정리하였다.

그림3. 글로벌 건설기업 성장성·수익성 포지션

(단위: %)



주: 숫자는 2013년 ENR 해외 부문 순위(상기 표1 참조)

자료: CIC(<http://www.construction-ic.com>), 각사 Annual Report

한편 ENR 기준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 1위인 스페인 업체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 및 유로존 위기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대폭 축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특히 FCC(36)는 매출이 2010년 163억 달러에서 2013년 89억 달러로 45%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2년 13억 달러(-13.8%), 2013년 20억 달러(-22.4%)의 당기 손실을 기록하였다. 금년 상반기 순이익률은 -1.8%로 손실 폭은 대폭 감소하였다. 스페인 업체 중 OHL(31)과 Ferrovial(14)은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상의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FCC와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Hochtief(2)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급증한 Grupo ACS는 2012년 25억 달러(-5.0%)의 당기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과 금년 상반기에는 2% 수준의 순이익률을 회복하였다.

미국의 KBR(40)과 Fluor(5)는 2%대의 순이익률로 중간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Fluor의 경우 매출 규모도 증가한 반면 KBR은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유럽 및 호주 업체들은 0%대의 당기 순익 혹은 손실을 기록하였다.

요약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세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업체 간 경쟁 심화, 가격 위주 발주 증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에 주력하면서 세부 지역·공종별로 선택적으로 외형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방향이 요구된다.

별첨. 19개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수익률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순위		업체	매출 ^{주)}					순이익률				
'13	'10		'10	'11	'12	'13	'14.1H	'10	'11	'12	'13	'14.1H
1	12	ACS	20.4	39.7	49.4	51.0	25.6	8.5	3.4	-5.0	1.8	2.1
2	1	Hochtief	26.8	32.4	32.8	35.9	16.8	1.4	-0.7	0.6	0.6	0.8
4	2	Vinci	45.4	52.7	50.4	54.1	25.4	5.2	5.0	4.9	4.8	7.1
5	7	Fluor	20.8	23.4	27.6	27.4	10.6	1.7	2.5	1.7	2.4	2.1
6	8	Strabag	16.4	19.1	16.7	16.6	7.3	1.4	1.4	0.5	0.9	-1.7
7	4	Bouygues	41.6	45.5	43.1	44.0	20.7	3.4	3.3	1.9	-2.3	2.7
8	5	Skanska	17.0	18.3	19.1	21.0	9.4	3.3	6.4	2.2	2.8	1.8
10	9	Technip	8.1	9.5	10.5	12.4	6.9	6.9	7.4	6.6	6.0	4.4
11	6	Saipem	14.8	17.6	16.9	15.8	8.2	7.6	7.3	5.0	-1.3	2.3
14	*	Ferrovial	12.5	10.4	9.8	10.8	5.7	23.0	16.7	9.1	8.9	4.0
16	13	Bilfinger	10.6	11.4	10.7	11.2	5.0	3.6	4.8	3.3	2.1	1.5
18	17	RoyalBam	9.8	10.7	9.3	9.4	4.6	0.2	1.6	-2.5	0.7	-0.2
21	22	Petrofac	4.4	5.8	6.2	6.3	2.5	12.8	9.3	10.1	10.3	5.4
31	21	OHL	6.9	7.4	5.2	4.9	2.3	3.8	4.2	25.0	7.3	2.3
33	25	Leighton	13.4	16.1	21.6	21.8	10.2	4.2	-2.6	2.2	2.3	2.6
35	16	Lend L.	9.7	9.2	12.0	11.8	12.8	3.3	5.5	4.3	4.5	5.9
36	10	FCC	16.3	16.6	9.6	8.9	4.0	2.5	0.9	-13.8	-22.4	-1.8
40	14	KBR	10.1	9.1	7.8	7.2	3.3	3.2	5.3	1.9	1.0	-1.5
*	19	Balfour B.	14.3	15.2	13.7	13.6	7.0	1.5	2.0	0.4	-0.4	-0.6
합계			319.2	370.2	372.3	384.1	188.3	4.8	4.6	2.1	2.2	2.8

주) 연평균 환율 적용 미국 달러화 환산

자료: CIC(<http://www.construction-ic.com>), 각사 Annual Report

[참고문헌]

Engineering News Records(2005~2014),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Factiva(2013.10.16), VINCI SA

Factiva(2014.2.26), ACS Actividades de Construcción y Servicios SA

Factiva(2014.3.16), STRABAG SE

Factiva(2014.3.16), HOCHTIEF AG

Factiva(2014.3.16), Fluor Corp.

전자공시시스템DB (<http://dart.fss.or.kr>)

EIA DB (<http://www.eia.gov>)

IMF DB (<http://www.imf.org>)

CIC DB (<http://www.construction-ic.com>)